

끓기거나 때려 사망...못된 아빠들 실태

생후 11개월과 8개월 된 아이를 칭얼댄다며 시끄럽다고 때리거나 심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부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11개월된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을 다니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3명의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식사나 용변 등을 챙겨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변죄부가 되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 악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당시 4세, 2세, 생후 11개월 된 아이들을 방치하고 기초적인 의식 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윤씨의 폭행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두 팔로 안아 수차례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잡아서 깨 울음이 터진 아이를 양팔로 잡고 위아래로 수회 강하고 빠르게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모차를 흔들 것으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아이를 안고 위아래로 흔들 것은 잠을 재우기 위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모차를 흔

칭얼대는 아이 폭행해 사망케한 아버지 징역 12년 우는 아이 흔들다 떨어뜨린 아버지 징역 3년6개월

들어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아이를 두 팔로 안고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일련의 행위를 확대해 평가할 수 있다며,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분 동안 23회에

걸쳐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면서 아이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쭉거렸고 이는 아이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나 아이를 흔들어 머리 뒷부분까지 들

어올리는 과정에서 놓칠 위험이 있는 등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추락시킨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컬링장으로 변신한 공항 입국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동계 스포츠의 열풍이 불어 패럴림픽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권위 "초등학교 교과서, 직업 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초·중등 교과서에서 발견된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적용된 교과서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화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 등이 담겨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

했다. 인권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교과서에 사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등은 아주머니 아주머니로 지칭된 데 비해 의사는 '선생님'으로 지칭됐다"며 "직업에 대해서는 소방관, 의사 등 중립적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적 차원

의 접근이 아닌 권리적 관점의 해결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기존 교과서에) 학교폭력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국가안전대진단 4월13일까지 2주 연장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1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해안부는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2월5일부터 3월30

일까지 시행하려던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연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안부는 중소형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개의 위험

시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파푸아뉴기니 7.5 강진 최소 10명 사망

26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중부 고원지대에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지 영문 일간지 '포스트 큐리어'는 지진 피해 지역인 헬라주(州) 관계자가 위성 전화로 이미 약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지진으로 수천개 건물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지 코모공 항도 크게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며 '매우 심각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3시45분(현지시간)께 파푸아뉴기니 하일랜드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진은 파푸아뉴기니 포게라에서 남서쪽으로 8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35km로 관측됐다.

파푸아뉴기니 당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6으로 관측했다. 지진 영향권에 든 인근 하일랜드주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설과 커피콩 재배지, 대형 광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랜드주에서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호주 오일서치·미국 엑스 모빌은 지진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피해 조사에 나섰다.

파푸아뉴기니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고, 크고 작은 지진이 잦다.

'휴전 결의' 시리아 동구타서 지상 충돌 심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임시 휴전 결의 이후 시리아 동구타에서 정부군 공습 강도는 줄었지만 지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NBC뉴스는 25일(현지시간) 현지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날 안보리가 '30일'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얼마 안 가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해 반군과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시도하며 정부군 공습이 재개됐고, 반군도 박격포 공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내전 감시기구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라이 압릴 라흐만 소장은 프랑스24방송에 결의안 통과 이후 정부군의 공습 횟수는 줄었지만 지상에서의 전투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흐만 소장은 동구타 남부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해 반군단체 자이시 알 이슬람 소속 대원 6명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부대 소속 군인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자이시 알 이슬람의 주요 대원인 모하메드 알로이시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이 정부군의 동구타 진압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군은 2012년부터 동구타 일대를 봉쇄해 왔다.

강도는 줄었지만 공습도 계속되고 있다. 동구타에 머물고 있는 한 반군 활동가는 "전혀 휴전이 아니다"라며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동구타 도시들을 계속 폭격하고 있다. 지금도 아사드군 헬리콥터가 날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의 임시 휴전 결의에도 충돌이 지속되면서 구호 단체들은 동구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십자(CICR)는 보안 우려 때문에 구호품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수송대를 진입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조업 중 팔레스타인 어민 사살

이스라엘군이 지정된 어업 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조업 중인 팔레스타인 어부를 사살해 팔레스타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WFA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어부 한 명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지기구 북서부 해안에 설정해 놓은 어업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한 어선에는 팔레스타인인 어부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이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총격을 받은 선박이 허용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경고 사격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허용 구역을 넘어오는 팔레스타인 어선들을 무기 밀매용 선박으로 간주한다. 가지기구 어민연맹은 선박에 타고 있던 어부들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던 것 뿐이라며 이스라엘군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지기구 내 반군 단체들의 무기 밀수를 막겠다고 2007년부터 일대를 봉쇄 중이다. 해상에서도 해안으로부터 60일(11km) 이내 조업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각餅, 자활치료, 영민 민력어